

제19호(2016. 9. 5.)

2016년 우리나라의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이상현 안수정



1.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1
2.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동향	4
3. 시사점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우병준 연구위원	061-820-2378	bjwoo@krei.re.kr
내용 문의	이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037	sh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34억 5,95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수출 대상국 내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 및 엔화의 강세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상반기 주요 수출 성장 품목은 연초류, 기타 조제농산품, 면류, 음료 등의 가공 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임.
 - 특히, 과실류와 연초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와 18.3% 증가하였고, 면류와 음료, 기타 조제농산품과 채소류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 반면, 과자류, 주류, 커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9.5%, 14.5% 감소함.
-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함.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5억 6,100만 달러임.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4억 9,262만 달러임.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3억 4,421만 달러임.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한 2억 1,800만 달러임. 對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비중이 2%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4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임.
-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에서 현지인들의 소비 증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짐. 수출 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현지 시장의 유통채널 다양화와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개발이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 내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의 수출 불안요소들이 다수 존재함.
 - 수출 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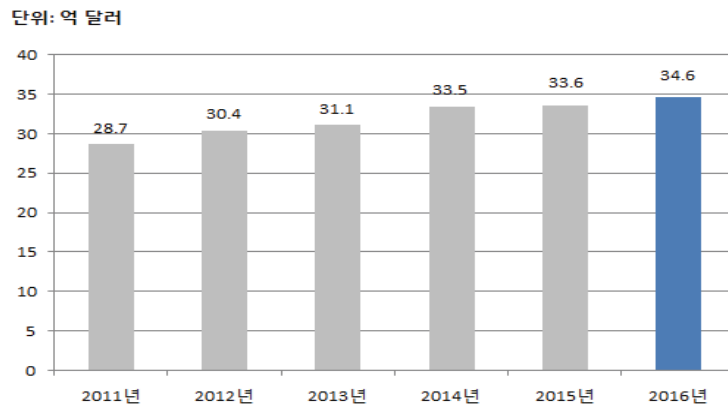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

1.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¹⁾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34억 5,95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수출 대상국 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 및 엔화의 강세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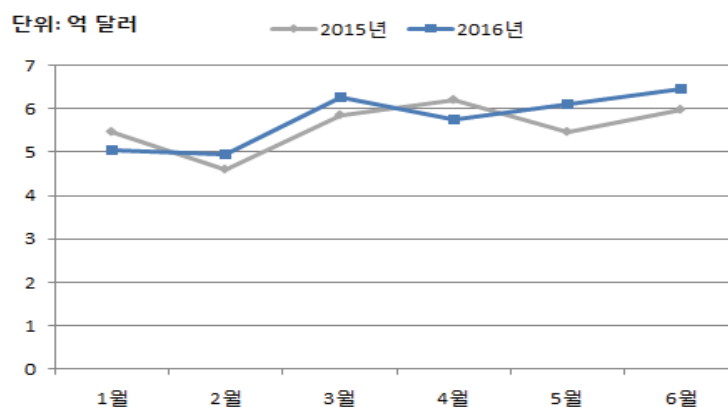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의 연간 상반기 수출 동향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fi.net).

□ 월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월과 4월에 감소세였으나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

그림 2. 우리나라의 상반기 월별 농식품 수출 동향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fi.net).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Code 대분류를 기준으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합계임.

연초류, 기타 조제농산품, 면류, 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의 신선 농산물 수출 증가

□ 2016년 상반기 주요 수출 성장 품목은 연초류, 기타 조제농산품, 면류, 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임.

○ 특히, 과실류와 연초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와 18.3% 증가하였고, 면류와 음료, 기타 조제농산품과 채소류도 10% 이상 증가했음.

* 기타조제 농산품은 혼합조제 식료품, 아이스크림, 식초 등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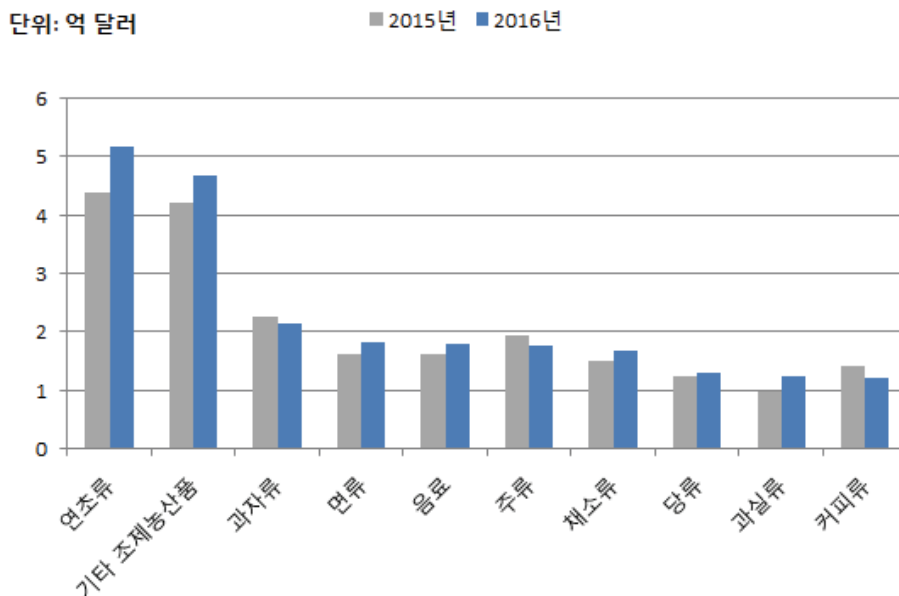
- 음료의 경우 미국시장 내 유통매장 확장 및 신규 바이어 확보로 인한 알로에음료 수출 증가와 캄보디아 내 한국산 에너지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과자류, 주류, 커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9.5%, 14.5% 감소함.

- 주류의 경우, 일본 현지 시장에서 저도주와 칵테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주류(막걸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

- 커피류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 증가와 동남아 상품과의 경쟁 심화로 커피조제품의 수출이 감소함.

그림 3.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상위 수출 품목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중국

□ 2016년 상반기 기준 연초류와 음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 수출 품목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중국

- 상위 수출 품목 중 연초류, 과자류, 주류, 채소류, 당류, 과실류는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60%으로 매우 높은 편임.
 - 신선 농산물 중 채소류 수출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은 49.6%로, 주로 파프리카와 김치가 수출되고 있음. 신선 농산물 중 과실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42.8%로, 주로 단일 과실조제품과 과실혼합물이 수출되고 있음.
- 상반기 농식품 수출 동향에서 사과, 파프리카,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는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교포들이 주로 소비하는 김치, 고추장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현지인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인삼, 가금육,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맥주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면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아쉬운 점임.

표 1.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과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1위	2위	3위
연초류	아랍에미리트 (38.5)	일본 (13.0)	미국 (10.8)
기타 조제농산물	일본 (14.8)	중국 (12.5)	미국 (11.0)
과자류	중국 (28.7)	일본 (18.3)	미국 (16.0)
면류	미국 (20.5)	중국 (15.3)	일본 (7.9)
음료	미국 (22.2)	캄보디아 (16.9)	중국 (14.1)
주류	일본 (60.5)	중국 (10.2)	홍콩 (10.1)
채소류	일본 (49.6)	미국 (7.7)	대만 (7.7)
당류	중국 (33.7)	홍콩 (16.5)	필리핀 (14.3)
과실류	중국 (42.8)	대만 (10.6)	홍콩 (7.8)
커피류	중국 (15.4)	인도네시아 (13.2)	러시아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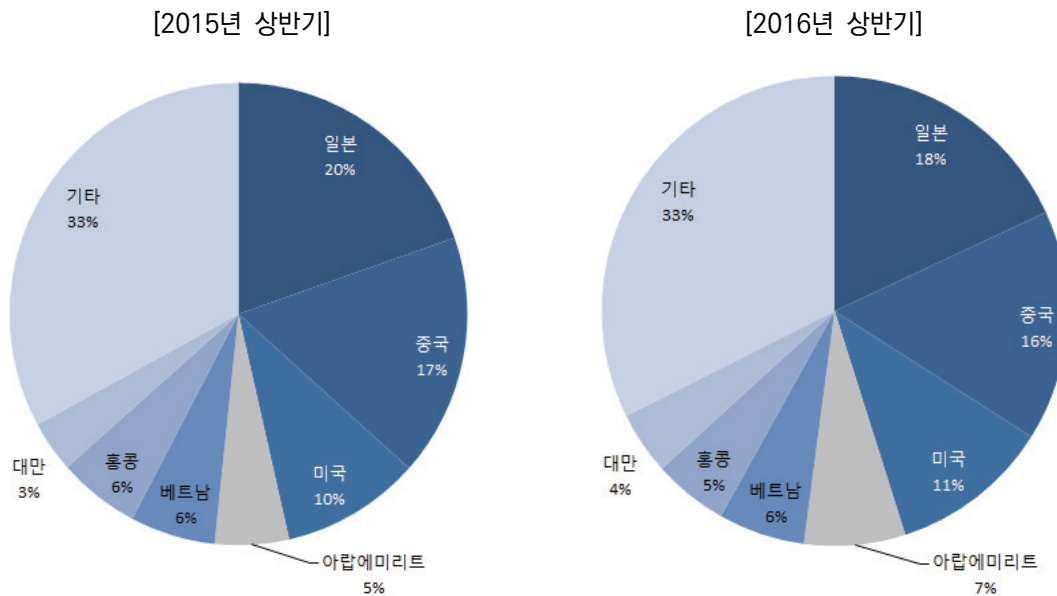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對일본·對중국 수출 감소, 對아랍에미리트 수출 크게 증가

2.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이었음. 전년 동기 대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對일본 및 중국 농식품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p와 1%p가 하락한 반면, 對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비중이 2%p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4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함.

그림 4. 상반기 농식품 수출 대상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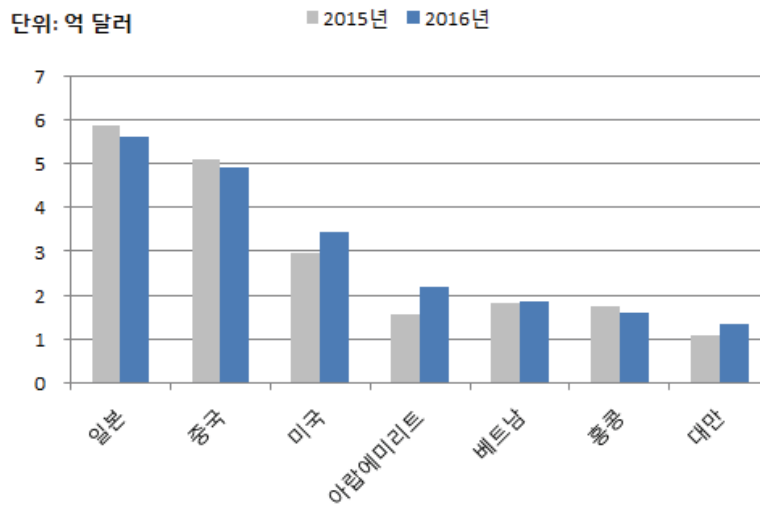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대만 내 우리나라 배추 및 사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對대만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p 증가하였음.

對미국, 對베트남, 對대만 수출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중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액은 크게 증가

그림 5. 상반기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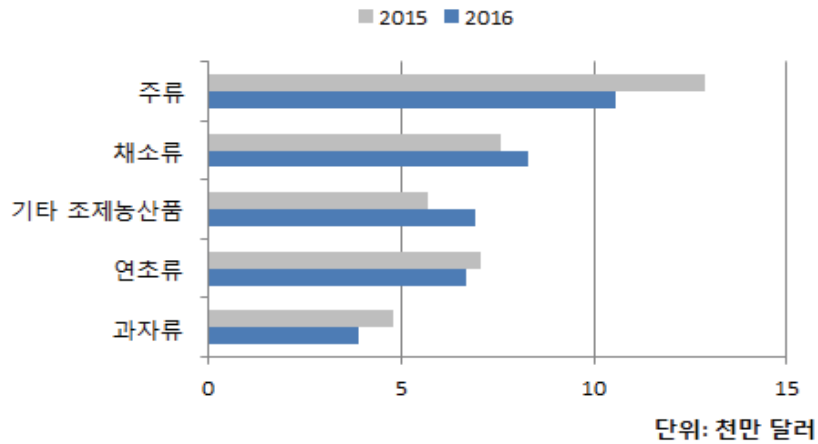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5억 6,100만 달러임.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4억 9,262만 달러임. 對홍콩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1억 6,058만 달러임.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한 2억 1,800만 달러임. 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3억 4,421만 달러임. 對베트남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억 8,644만 달러임. 對대만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1억 3,436만 달러임.

對일본 주류, 對중국 과자류 수출 감소, 對아랍에미리트와 對미국 연초류 수출 증가

-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의 기존 최대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최대 수출 품목 수출은 더욱 증가
- 對일본 최대 수출 품목인 주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하였고,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연초류와 과자류 등도 각각 5%와 18.7% 감소함.

그림 6.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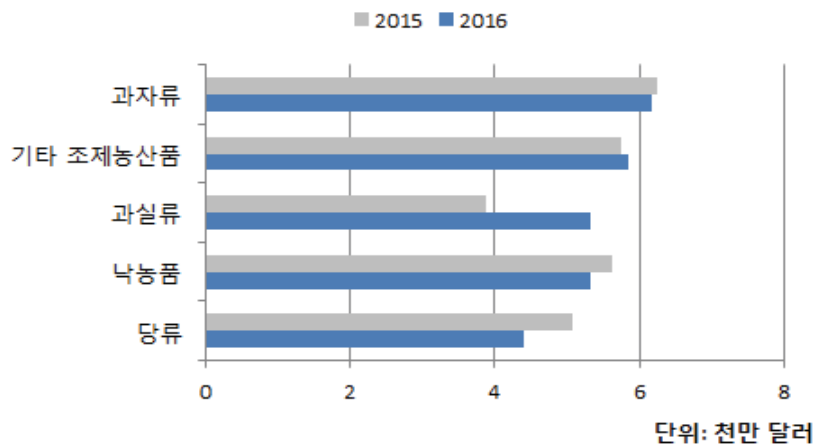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6

-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과자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고,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낙농품과 당류 등도 각각 5.5%와 13.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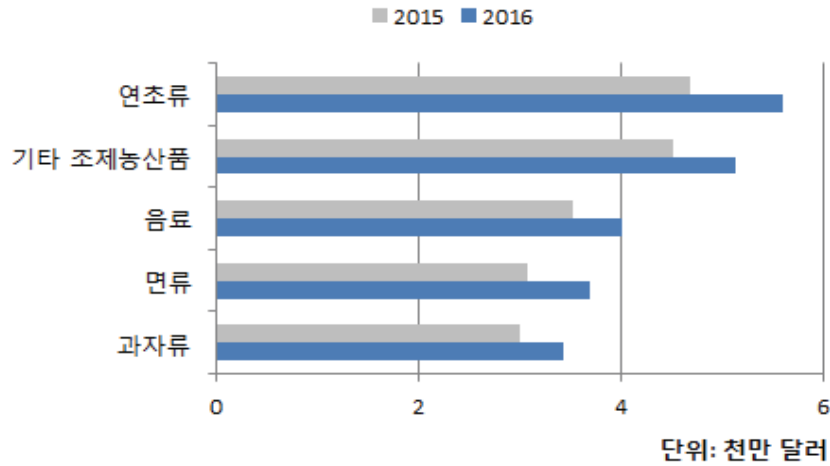
그림 7. 對중국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인 연초류와 면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기타 조제농산품, 음료, 과자류의 수출이 약 1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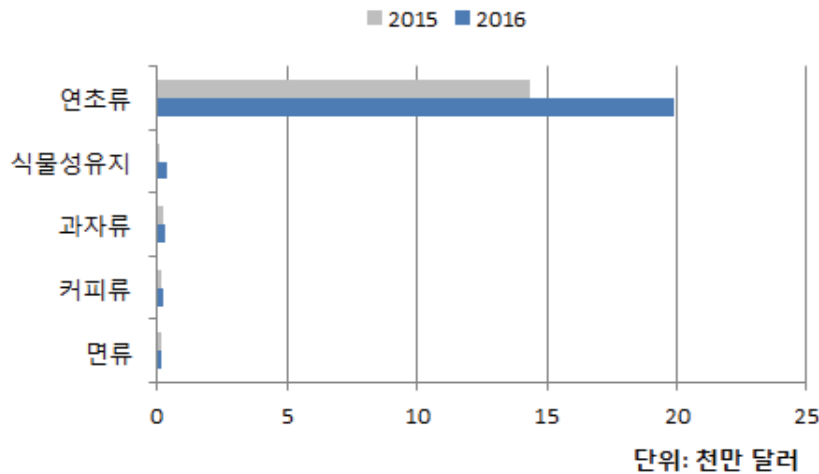
그림 8. 對미국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아랍에미리트 최대 수출 품목인 연초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인 식물성유지는 3,332.5%(105,076달러 → 3,606,784달러), 과자류, 커피류, 면류는 각각 38.8%, 29.0%, 19.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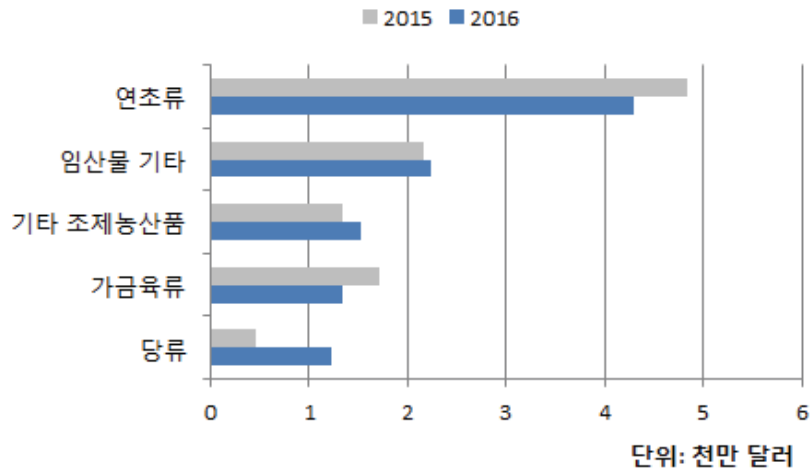
그림 9. 對아랍에미리트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인 연초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인 가금육류의 수출이 21.3% 감소한 반면, 임산물(기타), 기타 조제농산물, 당류의 수출은 각각 3.2%, 13.1%, 163.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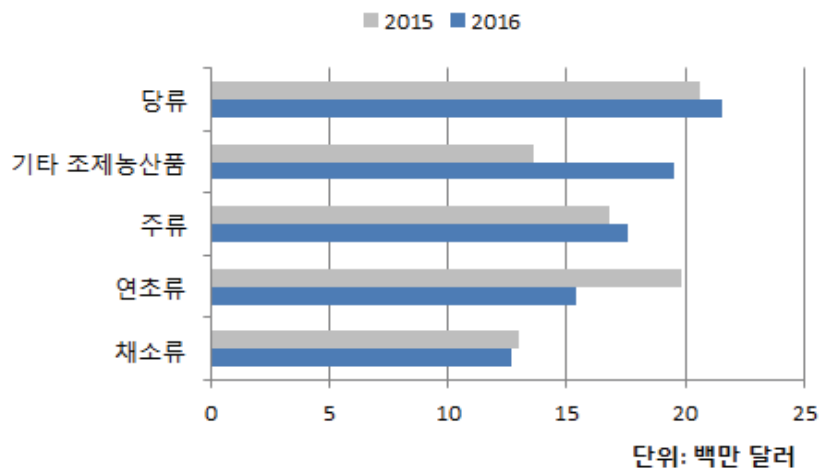
그림 10. 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홍콩 주요 수출 품목인 당류, 기타 조제농산물, 주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43.4%, 4.5% 증가한 반면, 연초류와 채소류의 수출은 각각 22.4%와 2.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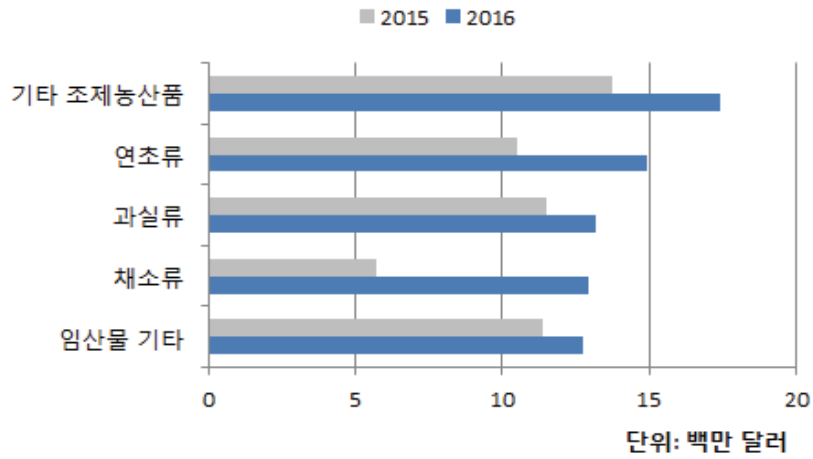
그림 11. 對홍콩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대만 주요 수출 품목인 기타 조제농산품, 연초류, 과실류 채소류, 임산물(기타)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채소류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함.

그림 12. 對대만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하반기 브렉시트, 사드 등 수출 불안 요소 대응을 위한 정부, 관련 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환율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2015년 상반기 대비 3.04% 증가
 -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수출 대상국 다양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임. 하반기에는 전년 상반기 대비 농식품 수출이 감소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베트남 등 최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ASEAN 국가에서의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농식품 수출은 상당 부분 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지 수입업체들은 교포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짐. 수출 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판매처는 백화점이나 한인마트임. 현지 시장 유통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함.
 -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개발도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 내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의 수출 불안요소가 다수 존재함.
 - 수출 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KREI 현안분석 제19호

2016년 우리나라의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9. 5.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